

# 정경심, 27일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교체 후 대등재판부로 구성

### 공판절차 갱신 진행... 조국과 병합 가능성은 낮아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중앙대 교수의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7일 오후 2시 정 교수의 5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5회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법원 부

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에는 정 교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를 김진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업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

성했다. 3명의 부장판사가 한 부를 맡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대등재판부로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과 재판 진행을 놓고 매번 부딪혔는데, 새 재판부에서도 검찰과 재판부 갈등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

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바뀐 만큼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1일 송 부장판사는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그대로 맡고 있고, 이미 재판부가 병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놓은 상황이라 병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종교계도 긴장**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조계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이날 예정된 일요법회를 법문없이 기도로만 진행했다.

## 광주시, 5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 10만원'

### 소태 나들목 부근 등 9개 지점 16대 CCTV 설치

광주시는 5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광주시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시행한다. CCTV는 △동구 소태 나들목

(IC) 부근 △남구 행암 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영광통사거리) △서구 5·18기념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나들목(IC) 부근 등에 설치된다.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5월부터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247만대)의 광주시 관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 전화(지역번호+114)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예비초등생 52명 안전 미확인**

경찰 "수사인력 총동원"

경찰청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중 안전·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교육부·외교부와 함께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을 파악한 결과 전체 45만 2506명 중 99.99%인 45만 245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고, 나머지 52명을 추적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47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안전·소재 확인이 안 된 상태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국 3466명의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 561명 등을 총동원해 실종 수사에 준하는 수사를 통해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예비소집을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했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유선 확인을 통한 상담과 가정방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등을 살폈다.

## ● 단신 ●

### 친구 포르쉐 야구방망이로 부순 조폭 30대 입건

친구의 고급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순 조폭력배가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 앞 도로에 주차된 친구 B씨(35)의 포르쉐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조폭력배 A씨(3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의 차량 일부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보닛과 트렁크 등도 훼손됐다. 이들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사이로 3~4년 전 동업을 하는 등 친형제 처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생활고에 시달려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력배인 A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며 "추가 범행여부 확인 뒤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광산구청 작업 중 청소업체 근로자 추락해 부상

22일 오전 11시50분쯤 광주 광산구청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던 청소업체 근로자 A씨(50)가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물탱크 청소 작업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사다리에 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생후 7개월 남아 온몸에 멍' 20대 미혼모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온몸을 때려 멍들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신고를 접수해왔다. 당시 B군의 상태는 온몸에 멍이 든 채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B군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23일 늦은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B군에 대한 부검을 24일~25일 중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 여수해양공원서 30대 남성 해상 추락

23일 오전 1시47분쯤 전남 여수시 중화동 해양공원 앞에서 A씨(31)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 2명이 바다에 들어가 A씨를 무사히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구조 후 이송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양호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캠핑차 해양공원에 방문했으며 화장실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해상에 추락한 것을 함께 온 지인이 발견, 신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공원 등 관광지에서 추락으로 인한 익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인적이 드문 해안가를 유주 등의 상태에서 홀로 걷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화조 청소

##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